

사설

정보화시대와 불교

지난 14일 김영삼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발표하여 정보통신사업을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다. 정보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루가 다르게 세상살이는 달라지고 있으며, 긴장속에서 급속히 바뀌는 변화는 더 한층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

깨달음을 통하여 열린 마당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불교가 추구하는 세계이다. 불가사의한 이산경계로만 생각하던 천리안이나 천안통이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다. 불교 교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살용되는 사회가 불교적 정보화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비하리만큼 초월적인 교리를 가진 불교가 실용화되는 시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사회화는 참으로 현실적인 운동이라고 본다.

그런데 정작 불교는 담너머 불구경하듯 별 반응없이 뒷짐지고 서성대고 있다. 정보화가 없다면 불교는 한낱 고적이나 골동품만을 지키는 과거의 한 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정부도 세계 열강과 더불어 살아남기 위해 서둘러 정보화 정책을 발표하고 드디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컴퓨터를 다루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보의 공유화는 일반상식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불교의 종단이나 단체는 그저 누군가 찾아와 무언가를 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최후 불종자의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다.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한글 검색엔진을 통해 개설된 종교관련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기독교와

가톨릭이 각각 15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불교는 겨우 9개에 불과하며, 이것도 개인이나 대학동아리 등의 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공신력이 있는 것은 5개에 불과하다.

지난 94년부터 정부는 전국적인 정보고속도로(ATM망)를 구축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0년쯤은 정보화시대가 만개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불교계가 사찰운영·신도관리·교육·포교 등 급박하게 닥쳐오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도 하루속히 '정보통신망 구축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관계자나 사찰경영자가 우선 보수성을 극복하고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정보는 공개를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불교 관련 여러 정보를 널리 제공하고 상대방의 정보도 적극 수용·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불교는 정보화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을 것이다.

정보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가 필수적이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합당한 교육기간에 위탁교육을 시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종단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도태되는 불교가 아니라 미래를 먼저 열어가는 불교가 되어야 불교의 미래상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한편 정보화 전략을 선언한 정부는 정보화시대의 종교역할도 행여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 윤리확립'에 불교의 가르침이 필수적이라고 불매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열린마당

대중불교결사 47개 신행단체 대표 78명 참석

대중불교결사 제7차 전국대회가 지난 12, 13일 충북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전국 47개 단체 78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대중불교운동의 회고와 전망'. 지금까지의 결사대회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뜻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대중불교결사의 이념과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의 추진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를 통한 분과토론과 강의 등으로 진행된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를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제7차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에 참석한 신행단체 지도자들.

강의요지

대중불교운동 주인의식·실천점점 필요

'대중불교운동의 회고와 전망' 주제의 강의에서 권기중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는 지난 89년 이래 6차까지 진행된 대중불교결사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해마다 결의문, 즉 구체적인 실천방안만 결의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중대한 과오가 아닐 수 없다"는 것.

더구나 대회를 거듭하며 또다른 실천방안이 제시되어, 대중불교결사의 내용이 변화하거나 제1차 대회 결의가 폐기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권기중씨 ○박완일씨

것. 권교수는 이에따라 "불교의 대중화운동은 이미 목표가 정해진 것이므로 그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결사의 모든 동참자가 각기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실천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일 전국신도회장은 '대중불교운동에 대한 나의 견해'를 통해 "대중불교운동은 새로운 이념에 따른 불교운동이 아니라 현실모순의 극복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끊임없이 중생에게 보람있는 삶을 제시해주는 것이라는 운동의 근본취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회장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불교의 주인"이라며 해방 후 자생적인 신행단체의 탄생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대중불교운동의 질적 도약이 더딘 이유를 재정의 미약함에 있다고 지적한 박회장은 "불교의 정체는 부처님의 뜻을 펼치는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

제7차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에 참석한 신행단체 지도자 일원은 불교가 급변하는 사회현실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나아가 한국불교의 중흥과 미래사회를 주도할 대중불교운동을 점진시키기 위해 지난 89년 7월 제1차 대회 때의 초발심 정신을 재다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집집마다 부처님 모시기 △마을마다 회관건립 △직장마다 법회봉행 △모든 가정의례의 불교화 △오계지킴이 생활화를 재전명하고 지난 91년 제3차 대회에서 선언했던 대중결사 결사문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중불교운동협의회'를 두고 대중불교운동 확산에 최선을 다한다.

분과토론 요약

의식체계화·교리보편화 시급

한국불교 제문제 누가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느냐는 주제화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살은 문제점과 역할이 있는 곳에서 탄생한다.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면서 분과토론에서 드러난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법회를 포함한 의식의 체계화와 교리의 보편화를 위해 한 글통일법요집의 개정 진행이 필요하다. 이같은 작업은 공인된 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 신행단체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각각의 다양성은 인정하되 도반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시급하다. 현행 제도교육은 서양외국의 수용을 암암리에 전파하고 있다. 권력교육을 확립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어린이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들의 정서에만 따르지 말고 정법에 입각한 지도가 필요하다. 신도들의 의식계도도 필요하다. 스님이 하는 것이라고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올바른 판단이 요청된다. 경전에 근거한 관혼상제 의식의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승가에 대한 비판은 승가에 의존하는 재가불교운동의 반영이다. 재정과 시간과 삶을 던져야 올바른 재가운동이 될 수 있다.

성인포교 '성과' 새싹포교 '위축'

대중불교운동 성과 80년대와 90년대를 비교해 변화와 발전정도를 살펴보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선 7년간 성인포교는 매우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청년불교는 80년대에 비해 매우 위축됐다. 종교대학생은 타종교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종단의 정책이 있으나 실천은 없다. 어린이는 더욱 심각하다. 대중불교운동의 지향점을 어린이 및 청소년 포교에 맞춰져야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환경 장기기증 문화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일정 정도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조직적이지 못하다. 일

시적인 현상에 머물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도소는 매주 2회 법회를 봉행하는 곳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군부대의 경우 병사불자들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졸장교들의 기독교화가 눈에 띄고 있다. 사관학교 포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사실천 상설기구화 급선무

재가운동 활성화 방안 대중불교결사가 올해로 7회를 맞았지만, 구체적 실천보다는 결사만 해오자, 앉았나 생각된다.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점진시키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이제는 실천에 나설 수 있는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 대중불교운동의 성과를 이어가고 향후 결사의 실천적 활동을 위해 대중불교결사의 상설기구 설립을 제안한다.

또 재가불교운동의 이념을 정리해야 한다. 승가비판 일색인 재가자의 행태의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 수행관과 불타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대만평



여기도 수능 시험을...



대중불교결사 모범실천, 장엄포교원 이동성원장

지난 89년 7월 봉선사에서 처음 열린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 이동성원장에게 이 대회는 남다른다. 이 대회를 통해 불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집집마다 부처님 모시기 △직장마다 법회봉행 △마을마다 불교회관 건립 △가정의례의 불교화 △오계를 준수한다는 결의를 신행활동의 중심으로 삼기로 했다.

공감 실행에 들어갔다. 직장인 쌍용양회 영일공장에 선우회를 구성했다. 지난 93년에는 제천에 장엄포교원을 개원했다. 현재 200여세대가 신행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불자가장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최근에는 지장보살 사진을 집집마다 배포하고 있

2백세대 신행활동 활발 지장보살 사진 집집마다

다. 부인 자비행보살은 어린이법회를 맡았다. 부부불자로서도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7차의 결사가 진행되면서 대중불교결사 주최측에 내심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집집마다 부처님을 모신다면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어떻게 예불을 올려야 하는지 지침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 직장법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서로 경험을 나누는 자리도 필요한데 결의만 있었지 점검과 반성도 없었어. 이제 불교일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하기 이전에 일의 순서가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악을 저질렀어도

먼저 악을 저질렀다 해도 뒤에 이득 고백하며, 뒤우치고 나서서 부끄러워하여 다시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 (역부경)

염천 조계사 주지 현근 TEL.(02)720-1390

정중선원

원력과 서원 기도가 함께하는 정중선원 고승초청 영가 천도법회 안내

끊임없는 원력과 기도정진력으로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나가시는 불자님 가정에 항상 불, 보살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불자님의 기도 정진원력은 가정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름길이며 자신의 참 심품을 밝히고 무명 업식을 벗기며 윤회의 길을 벗어나는 선견종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윤회의 굴레에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명, 업식과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올바른 기도와 제불 보살님 그리고 참다운 선지식을 만나 올바른 길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영가 천도제 초청 법사

11월 4일	현해스님	월정사
11월 18일	자광스님	김릉사
12월 2일	묘허스님	원명사
12월 9일	동광스님	도선사
12월 16일	용파스님	국신사
12월 23일	무진장스님	조계사

저희 정중선원은 지난 6월 24일 월성근스님(본선원 원장), 7월1일 월주 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부터 시작하여 영가 천도법회를 계속 봉행해오고 있습니다.

영가 천도제 왜 하여야 하나? 계속될 대덕 큰스님들의 천도법회!

중생들이 무명업식을 벗어나는 올바른 길을 인도 받을 수 있는 자리, 인연있는 불자님의 많은 권선과 수회 동참을 바랍니다.



강남구 도곡동 518-7 영재빌딩/전화 573-8506

정중선원 주지 광진 합장